

韓國 高級公務員의 社會的背景*

俞 焄

—目 次—

一. 社會的背景의 意義 및 調査方法

- (1) 社會의 背景의 意義
- (2) 調査方法

二. 年 齡

- (1) 現在의 年齡
- (2) 就任當時의 年齡

三. 出生地

四. 父親의 職業과 父親의 學歷

- (1) 父親의 職業

- (2) 父親의 學歷

五. 學 歷

- (1) 教育水準
- (2) 專攻學科
- (3) 出身學校
- (4) 外國訓練

六. 宗 教

七. 前 職

八. 就職動機

一. 社會的背景의 意義 및 調査方法

(1) 社會的背景의 意義

政治나 行政過程에 있어서 政策決定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問題는 가장 重要한 研究課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政策決定의 研究를 위하여 從來에는 人間보다 制度의 研究에 置重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政策決定은 制度속의 人間이 하는 까닭에 制度보다 人間의 研究가 重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리하여 最近에는 政策決定過程의 研究를 위하여 政策決定에 參與하는 政治家나 高級公務員, 特히 그들의 行態나 決定에 影響을 주는 그들의 社會的成分, 教育等を 檢討하게 되었다.⁽¹⁾ 이것과 關聯하여 指摘하여 둘 것은 高級公務員의 社會의 背景의 代表性이다. 例를 들

* 本調査는 行政改革調査委員會의 委屬을 받아 行政大學院에서 完遂한 「公務員制度」 調査의 一環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筆者에게 이 調査의 內容을 發表할 수 있는 機會를 許容한 金雲泰, 朴東緒, 金海東, 崔鍾起 諸教授와 行政改革調査委員會에 謝意을 表하고자 한다. 이 調査는 前記 四教授와 筆者의 共同프로젝트이기는 하나 資料의 分析과 解釋은 어디까지나 筆者의 것이며, 따라서 誤謬에 對한 責任도 筆者만이 지야 한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한다.

(1) 政治家나 高級公務員의 社會的背景에 關한 研究가 많이 있으나 가장 代表的인 것을 들어 본다면 Ronald R. Matthews, *The Social Background of Political Decision-Makers*, Garden City, N.Y., Doubleday, 1954, Reinhard Bendix, *Higher Civil Servants in American Society*, Boulder, University

면 英國의 경우에 있어서 20—64 歲의 總 男性 人口에 있어서 醫師, 辯護士, 高級公務員, 中級公務員, 店主, 其他 小規模雇傭主가 차지하는 比率은 16.7%에 지나지 않는데 高級公務員의 約 74%가 前述한 職業에 從事하는 사람들의 子女라는 事實은 英國 高級公務員의 「代表性」이 稀薄하다는 것을 立證하고 있는 것이다.⁽²⁾ 高級公務員의 「代表性」의 重要性은 「責任的인 官僚制는 代表的인 官僚制에서만 찾아 볼 수 있다」⁽³⁾는 킹그즈리(Kingsley)의 말에 어느程度 贊意를 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⁴⁾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의 3級以上 公務員의 年齡, 出生地, 父親의 職業과 父親의 學歷, 本人의 學歷, 本人의 宗教, 前職, 就職動機等を 檢討하기로 한다.

(2) 調查方法

調查方法은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2級 및 3級 公務員의 履歷書調查이다. 表 1 과 같이 3級 乙類公務員의 경우에 있어서는 1966年 6月 1日 現在 6,833名中 670名을 選定하였고 3級甲類는 2,870名中 654名을, 2級 乙類는 229名中 201名을, 2級 甲類는 226名中 114名을 選定하여 이들의 履歷書를 調查하였다.

둘째는 質疑書를 통한 調查이다. 1966年 7月과 8월에 걸쳐서 서울 其他 各都市에 散在

表 1 調查對象者職級別統計

現 職 級	人 員 數	百 分 率	1966. 6. 1 現在數
3 乙	670	40.85	6,833
3 甲	654	39.81	2,870
2 乙	201	12.25	229
2 甲	114	6.95	226
未詳	1	0.6	
計	1,640	100%	

of Colorado Press, 1949, Dwaine Marvick(ed.), *Political Decision-Makers*, New York, Free Press, 1961 等이 있다. 韓國의 高級公務員의 社會的 背景에 關해서는 朴東緒 「韓國高級公務員의 問題點—成分을 中心으로」 行政管理, 1963年 7月號(通卷 6號) pp. 136—145 가 있다.

- (2) R.K. Kelsall, *Higher Civil Servants in Britain from 1870 to the Present Da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55, pp. 157—8.
- (3) J.D. Kingsley, *Representative Bureaucracy*, Yellow Springs, Antioch Press, 1944, p. 279.
- (4) 립셋(Lipset) 같은 사람은 킹그즈리의 主張에 全적으로 贊意를 表하면서 1918년부터 1920년까지 政權을 잡은 와이말共和國의 社會民主黨이 權力構造와 經濟體制에 根本的인 變革을 加하지 못한 것은 獨逸官僚가 變革을 阻止하는데 主動的인 役割을 한것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S.M. Lipset, *Agrarian Socialism: The Cooperative Commonwealth Federation in Saskatchewan, A Study in Political Sociolog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0, pp. 257—59). 그러나 화이너(Finer)는 이를 根據없는 主張이라 一蹴하고 있다. (Herman Finer, *Theory and Practice of Modern Government*, revised edition, New York, Holt, 1949, pp. 616—7)

해 있는 高級公務員에게 質疑書를 配付하여 658 枚를 回收하였다.

세째로 本公務員制度調査에 從事한 本大學院 金海東 教授가 다른 機會에 調査한 것을 引用하였다. 이 調査는 教育公務員과 技能職, 雇傭員을 包含한 우리나라의 公務員을 市道別로 그 分布狀態를 調査하여 標本 2,500 을 그 比例에 따라 各市道에 割當했다. 大學教授, 判檢事, 1 級 2 級 公務員과 濟州道는 調査對象에서 除外되었다.

이밖에 外國의 高級公務員의 社會的 背景에 關한 統計를 必要에 따라 引用하였다

二. 年 齡

(1) 現在의 年 齡

첫째로 우리나라 高級公務員의 年齡을 살펴 볼 때 41 歲부터 45 歲間의 公務員이 가장 많으며, 다음이 36 歲부터 40 歲間, 46 歲부터 50 歲間, 31 歲부터 35 歲間의 順序로 되어 있다. 이리하여 高級公務員의 87.1%가 31 歲 乃至 50 歲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우리나라 全體公務員의 年齡과 比較하여 본다면 豫想한 바와 같이 高級公務員의 年齡이 훨씬 높다.

表 2 高級公務員의 年 齡

年 齡	人 員 數	百 分 率
20歲~25歲	1	0.6
26~30	42	2.56
31~35	215	13.1
36~40	455	27.74
41~45	462	28.17
46~50	297	18.1
51~55	124	7.56
56~60	39	2.37
60歲以上	4	0.24
未 詳	1	0.06
計	1,640	100%

表 3 全體公務員의 年 齡

年 齡	人 員 數	百 分 率
20~24歲	104名	4.8%
25~29	342	15.9
30~34	681	31.7
35~39	505	23.5
40~49	445	20.7
50歲以上	50	2.3
未 詳	24	1.1
合 計	2,151	100.0

表 4

現 職 級 別 年 齡

現職級	年 齡										計
	20~25	26~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0歲以上	未詳	
3 乙	0.14	5.52	17.46	29.55	26.71	13.28	5.82	1.34	—	0.14	100%
3 甲	—	0.76	12.23	26.91	27.98	19.87	9.02	2.59	0.61	—	100
2 乙	—	—	6.96	25.37	27.36	23.38	10.94	5.97	—	—	100
2 甲	—	—	3.5	26.31	39.47	26.31	3.5	6.87	—	—	100
1 級	—	—	—	—	—	—	—	—	—	—	—
未詳	—	—	—	—	—	100	—	—	—	—	100

이를 職級別로 본다면 3級乙類의 경우에 있어서는 36歲 乃至 40歲가 가장 많으며 31歲로부터 45歲사이의 公務員이 3級乙類로 在職하고 있는 公務員의 73.7%를 차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級甲類의 경우에 있어서는 41歲 乃至 45歲의 公務員이 가장 많으며, 36歲로부터 50歲 사이의 公務員이 3甲의 74.8%를 占하고 있다. 2級乙類의 경우를 본다면 3甲이나, 2甲의 경우와 같이 41歲 乃至 45歲의 公務員이 가장 많으나, 3甲의 경우와는 달리 26歲 乃至 30歲의 公務員은 없고, 36歲로부터 50歲사이의 公務員이 2乙 全體의 76.1%를 차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甲의 경우에 있어서는 2乙이나 3甲의 경우와 같이 41歲 乃至 45歲의 公務員이 가장 많으나 2乙의 경우와 다른 것은 2乙은 41歲 乃至 45歲의 公務員이 27.4%를 차지하고 있는데 2甲의 경우에는 41歲 乃至 50歲의 公務員이 39.5%를 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36歲로부터 50歲사이의 公務員이 2甲 全體의 92.1%를 占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하나 特異한 點은 3級甲類의 경우에는 60歲 以上の 公務員이 0.61%를 차지하고 있는데 對하여 二級乙類나 二級甲類의 경우에 있어서는 60歲 以上の 公務員이 없다는 事實이다.

(2) 就任當時의 年齡

就任當時의 年齡을 살펴 본다면 20歲부터 25歲사이에 公務員으로 任命된 사람이 33.6%

表 5

就 任 當 時 年 齡

就任當時年齡	人 員 數	百 分 率
20歲未滿	284	17.31
20~25	551	33.59
26~30	381	23.23
31~35	261	15.91
36~40	98	5.97
41~45	38	2.32
46~50	11	0.67
50歲以上	3	0.18
未詳	13	0.79
計	1,640	100%

表 6

現職級別 就任 當時 年齡

現職級	就任當時年齡									
	20歲未滿	21~25	26~30	31~35	36~40	41~45	46~50	50歲以上	未詳	計
3 乙	19.55	37.46	24.77	12.83	2.68	1.04	0.44	—	1.19	100%
3 甲	16.97	31.49	22.62	17.58	6.26	3.21	0.91	0.3	0.61	100%
2 乙	14.42	31.84	21.89	15.92	11.44	2.98	0.49	0.49	0.49	100%
2 甲	11.4	26.31	19.29	24.56	14.03	3.5	0.87	—	—	100%
1 級	—	—	—	—	—	—	—	—	—	—
未詳	—	—	100	—	—	—	—	—	—	100%

로서 가장 많으며, 다음이 26—30 歲로서 23.2%이다. 또한全體 高級公務員의 74.13%가 30 歲以下에 公務員으로 就任하였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이를 職級別로 考察한다면 어느 경우나 21—25 歲에 任命된 사람이 가장 많으나 30 歲以下에 任命된 사람의 比率는 職級에 따라 多少 다르다. 現在의 3 級乙類公務員中 30 歲以下에 公務員으로 就任한 사람이 81.78%인데, 3 級甲類의 경우에는 71.08%, 2 級乙類의 경우에는 68.15%, 2 級甲類의 경우에는 57%로서 職級이 높을수록 그 比率이 低下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公務員으로 就任하는 年齡이 漸次 低下하고 있음을 立證하는 것이다.

三. 出 生 地

出生地에 關해서는 履歷書를 通하여 具體的으로 알 길이 없으므로 前述한 바 있는 質疑書를 통한 調査에 依存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高級公務員의 過半數가 郡廳 所在地 또는 邑·面事務所 所在地에서 出生했다는 事實을 指摘할 수 있으며, 20% 以上の 高級公務員이 郡廳이나 邑·面事務所 所在地도 아닌 農村에서 出生했다는 것도 特記할 만 하다. 市에서 出生한 사람은 全體의 18.5%에 지나지 않으며 서울에서 出生한 사람은 더욱 적어 10%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美聯邦政府의 高級公務員이나 佛蘭西의 高級公務員의 出生地와 比較하면 興味가 있다.

表 7

出 生 地

區 分	人 員 數	百 分 率
市	122명	18.5 %
郡邑面 事務所 所在地	332	50.4
서울 特別 市	66	10.0
其 他	134	20.4
무 응 답	4	0.6
計	658	100%

먼저 美國의 경우를 본다면 벤딕스(Bendix)가指摘한 바와 같이 美聯邦政府의 高級公務員은 大部分이 中小都市出身인 것이다. 表 8을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美國의 高級公務員의 近 50%가 人口 五千未滿의 小都市 또는 農村에서 出生했으며, 約 40%가 人口 二千五百未滿의 小都市 또는 農村出身이다. 佛蘭西의 경우는 二次大戰後의 高級公務員의 唯一한 養成所라고 할 수 있는 行政大學院合格者의 出生地를 살펴 보기로 한다. 表 9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行政大學院合格者의 30% 乃至 40%가 파리 出生者이다.

이와 같이 考察할 때 우리나라 高級公務員의 出生地는 美國의 高級公務員의 경우와 類似하며 佛蘭西 高級公務員의 出生地와 判異함을 알 수 있다.

表 8 美聯邦政府의 高級公務員의 出生地(人口別)

出生地의 規模 (人口)	公務員 數	%
2,500名未滿	85	41.4
2,500~ 4,999名	16	7.8
5,000~ 9,999名	11	5.4
10,000~ 24,999名	16	7.8
25,000~ 49,999名	11	5.4
50,000~ 99,999名	11	5.4
100,000~499,999名	25	12.2
500,000名 以上	30	14.6
合 計	205	100.0

資料 : Reinhard Bendix, *Higher Civil Servants in American Society*, Boulder, University of Colorado Press, 1949.

表 9 佛蘭西 行政大學院 合格者의 出身地域 百分率(1952—53과 1962—63)

年度別 地域別 出身別		1952—53			1962—63		
		파리 地域	其他 地域	合 計	파리 地域	其他 地域	合 計
學生 出身	出生	39.1%	60.9%	100.0%	33.3%	66.7%	100.0%
	居住	71.3%	28.7%	100.0%	89.4%	10.6%	100.0%
公務 員身	出生	25.7%	74.3%	100.0%	17.8%	82.2%	100.0%
	居住	51.4%	48.6%	100.0%	55.6%	44.4%	100.0%

資料 : Henry Parris, "Twenty Years of l'E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Winter 1965, p. 405

四. 父親의 職業과 學歷

(1) 父親의 職業

먼저 高級公務員의 父親의 職業을 살펴 본다면 自作農이 36%를 차지하여 가장 많으며,

다음이 公務員으로서 全體의 15.5%이며, 小規模事業主가 11.5%를 占하고 있다.

이를 다른 角度에서 본다면 地主이건, 自作農이건, 小作農이건 間에 農業을 主業으로 하는 父親을 지닌 高級公務員이 全體의 48.1%를 찾아하고 있는데 이는 前述한 바 있는 出生地와도 關聯이 있는 事實로서 우리나라 高級公務員의 태반이 農村出身임을 立證하는 것이다. 이點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高級公務員은 英國이나 佛蘭西의 高級公務員 보다는 美國의 高級公務員과 類似하다고 하겠다.

또 다른 角度에서 살펴 본다면 公務員은 高級公務員與否를 알 수 없으므로 論外로 하고,

表 10 父親의 主된 職業(公務員이 5~25歲사이)

區 分	人 員 數	百 分 率
公 務 員	102명	15.5%
醫 師	10	1.5
教 師	13	1.9
大 規 模 事 業 主	17	2.5
小 規 模 事 業 主	76	11.5
技 術 者 (運轉士 包含)	13	1.9
會 社 員	24	3.8
勞 動 者	0	0
大 地 主	40	6.1
自 作 農	237	36.0
小 作 農	44	6.6
漁 業 (船 主 單)	4	0.6
法 曹 人 (判事, 辨護士, 檢事)	3	0.4
無 職	10	1.5
其 他 (無 應 答)	65	9.8
計	658	100

表 11-1 美國의 高級公務員의 父親의 職業(1948)

高級公務員의 父親의 職業과 同職業에 從事하는 사람들이 總 男性 人口(1900年 現在)에 있어서 차지하는 比率

職 業	總 男 性 人 口	高 級 公 務 員 的 父 親
勞 動 者 (未 熟 練 半 熟 練)	39.0%	1.1%
熟 練 勞 動 者	14.0%	8.9%
書 記, 販 賣 員	6.1%	3.3%
農 業 家	25.3%	29.0%
實 業 家(小 規 模)	6.6%	18.9%
實 業 家(大 規 模)	1.7%	7.2%
公 務 員	3.6%	3.3%
知 的 職 業 者(Professional)	3.2%	28.3%
合 計	100.0%	100.0%

資料 : Bendix, *op. cit.*,

醫師, 大規模事業主, 地主, 法曹人(判事, 檢事, 辯護士)等 富裕한 家庭에서 태어난 高級公務員은 그 數가 極히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高級公務員이 社會的 成分(social origin)이라는 觀點에서 볼 때 比較的 代表性이 높다는 것(佛蘭西, 英國의 경우와 比較하라)을 立證하는 同時에, 日政時代에 韓國人으로서 醫師, 大規模事業主, 判事, 檢事, 辯護士 等의 職業을 가진 사람이 적었다는데에도 그 理由가 있다고 하겠다.

表 11-2 美國高級公務員의 父親의 職業(1959)
(高級公務員의 父親의 職業과 同職業에 從事하는 사람들이 總 男性人口에 있어서 차지하는 比率)

職 業	總男性人口(1920年現在)	高級公務員의 父親의 職業
勞 動 者(未 熟 練·半 熟 練)	31%	4%
熟 練 勞 動 者	16	19
小 規 模 事 業 體 所 有 主	5	15
書 記 販 賣 員	10	10
집 장	2	5
實 業 家·大規模 事業體 所有主	4	15
知 的 職 業	4	16
農 場 勞 動 者	7	0*
農 業 (自作農·小作人 包含)	20	15
其 他	1	1
合 計	100%	100%

* 0.5% 未滿

資料: W. Lloyd Warner, Paul P. Van Riper, Norman H. Martin and Orvis F. Collins, "A New Look at the Career Civil Service Executiv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December 1962, p. 194.

表 12 佛蘭西 行政大學院 合格者의 父親의 職業
(1952-3과 1962-3)

父 親 的 職 業	1952-3			1962-3		
	學 生 出 身	公 務 員 出 身	合 計	學 生 出 身	公 務 員 出 身	合 計
公 務 員 (A 級)	%	%	%	%	%	%
公 務 員 (B 級)	30.4	21.1	25.9	28.4	15.6	25.3
公 務 員 (其 他)	2.6	17.4	9.8	2.1	6.7	3.2
熟 練 藝 術 家 等	0.9	7.4	4.0	—	13.3	3.2
企 業 體 所 有 主	10.4	15.6	13.0	9.9	6.7	9.1
商 工 業 體 所 有 主	6.1	2.8	4.5	5.7	—	4.3
商 工 業 體 所 有 主	21.7	11.9	17.0	22.0	13.3	19.9
商 工 業 體 所 有 主	3.5	6.4	4.9	7.1	17.8	9.7
勞 動 者	1.7	0.9	1.3	—	2.2	0.5
農 民	15.7	5.5	10.7	22.7	11.1	19.9
自 由 職 業	3.5	4.5	4.0	—	11.1	2.7
其 他 及 職 業 未 詳	3.5	6.5	4.9	2.1	2.2	2.2
合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Parris, *op. cit.*, p. 404.

마지막으로 指摘할 것은 우리나라의 高級公務員中 父親의 職業이 公務員인 사람이 全體의 15.5%를 차지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것을 다른 나라의 경우와 比較하여 보면 더욱 興味가 있다. 佛蘭西에 있어서는 公務員의 子女가 佛蘭西 行政大學院合格者(1962-3)의 31.7%를 이루고 있는데 美國에서는 公務員의 子女가 다시 公務員이 되는 경우는 極히 드물다. 獨逸의 경우를 본다면 公務員의 後孫들이 高級公務員의 많은 部分을 차지하고 있다.⁽⁵⁾ 萬一에

表 13 英國의 高級公務員의 父親의 職業

1929年과 1939年, 1950年 現在 高級公務員(Assistant Secretary 以上)의 父親의 職業(同 公務員의 出生時에 있어서의)과 同職業에 從事하는 사람이 總 男性 人口에 있어서 차지하는 比率

	1929年		1939年		1950年		20~64歲 의 男性의 %
	No.	%	No.	%	No.	%	
不 勞 所 得 者	10	8.3	5	2.8	10	3.0	1.5
農 業	3	2.5	3	1.7	3	0.9	2.0
農 場 勞 動 者	—	—	1	0.6	1	0.3	4.5
高級公務員知的 職業等	47	38.8	74	41.3	105	31.7	3.3
中 級 公 務 員 等	29	24.0	37	20.7	83	25.1	9.6
店主 其他 小規模 雇傭主	18	14.9	27	15.1	40	12.1	3.7
書 記	5	4.1	10	5.6	17	5.1	4.7
店 員	1	0.8	6	3.3	18	5.5	3.2
下 人 使 喚 等	—	—	—	—	2	0.6	2.2
什 長 (foreman)	1	0.8	1	0.6	5	1.5	3.6
熟 練 工	7	5.8	11	6.1	40	11.1	35.9
半 熟 練 工·未 熟 練 工	—	—	4	2.2	7	2.1	23.7
軍 人	—	—	—	—	—	—	2.1
合 計	121	100.0	179	100.0	331	100.0	100.0

R.K. Kelsall, *Higher Civil Servants in Britain*,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55, pp. 157-8,

法官 敎員까지도 公務員으로 看做한다면 獨逸의 高級公務員의 48.5%가 公務員의 後孫들이인 것이다. 이와 같은 統計는 그나라 公務員의 社會的評價(social prestige)와 關聯이 있다고 생각 한다. 우리나라나 獨, 佛에 있어서는 公務員의 社會的 評價가 比較的 높은 까닭에 公務員의 後孫들이 公務員이 되는 比率이 높으나 美國에 있어서는 公務員의 社會的 評價가 낮은 까닭에 公務員의 後孫들이 다시 公務員이 되는 比率이 낮다고 할 수 있다.

(2) 父親의 學歷

다음에 父親의 學歷을 본다면 無學과 漢學이 全體의 50.2%를 차지하고 있는 反面 專門學校(中退 包含) 以上の 學歷을 지닌 公務員의 父親은 13.4%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Bendix, *op. cit.*, p. 31.

이는 日政時代의 우리나라의 一般 教育水準을 말하여 주는 좋은 資料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後述하는 公務員 本人의 學歷과 比較하여 볼 때 거기에 顯격한 差異가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表 14 父 親 의 學 歷

區 分	人 員 數	百 分 率 %
無 學 歷	12명	1.8%
漢 學	319	48.4
國 民 學 校 (中退包含)	66	10.0
中 學 校 (")	154	23.4
專 門 學 校 (")	59	8.9
大 學 校 (")	28	4.2
그 以 上	2	0.3
無 應 答	18	2.7
計	658	100

五. 學 歷

(1) 教育水準

大學을 卒業하지 못한 公務員中 公務員으로 就任한 後에도 꾸준히 努力하여 大學을 卒業한 사람이 많으며, 大學을 卒業한 公務員이 就任後에도 學業을 繼續하여 碩士學位를 獲得한 例가 많다. 美國의 경우를 보면 就職後에도 學業을 繼續한 公務員이 30-49歲의 경우에 있어서는 47%에 達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高級公務員의 現在의 學歷에 關한 統計가 正確하지 않으므로 이곳에서는 公務員으로 就任할 當時의 學歷만 가지고 論할 수 밖에 없다.

表 15 美國의 高級公務員中 就任前에 教育을 畢한者

區 分	年 齡 別		
	30~39歲	40~49歲	50歲 以上
就任前에 畢한者	53%	53%	63%
就任後에 畢한者	47%	47%	37%

資料 : Bendix, *op. cit.*, p. 34.

大學卒業 以上の 學歷을 지닌 高級公務員은 46.5%이며 高等學校卒業 以下の 學歷을 지닌 高級公務員은 35.54%이다. 이를 全體 公務員의 學歷과 比較한다면 3級以上の 高級公務員의 學歷이 全體 公務員의 學歷水準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職級別로 考察한다면 3級乙類의 경우에 있어서는 獨學 또는 漢學은 없고 大學卒業 以上の 學歷을 지닌 公務員은 43.73%이며 高等學校卒業 以下の 學歷을 지닌 公務員은 44.

表 16

就任當時學歷 (三級以上 公務員)

就 任 當 時 學 歷	人 員 數	百 分 率
獨 學 · 漢 學	4名	0.24%
國 民 學 校(中退包含)	78	4.75
中·高 및 舊制中學校(")	501	30.54
初 大 및 專 門(")	167	10.18
大 學 中 退	51	3.1
大 學 卒 業	707	43.1
大 學 院(學位未畢)	7	0.42
學 位 所 持 者(碩士以上)	49	2.98
未 詳	76	4.63
計	1,640	100

表 17

學 歷 (全公務員)

學 歷	人 員 數	百 分 率
獨 學	2名	0.1%
國 民 學 校 中 退 및 卒 業	110	5.1
中 高 等 學 校 中 退 및 卒 業	1,266	58.9
專 門 學 校 大 學 卒 業	722	33.6
그 以 上	18	0.8
未 詳	33	1.5
合 計	2,151	100.0

註：大學教授，判檢事， 및 1.2級 公務員 除外

表 18

現職級別 就任 當時의 學歷

就任當 時의 學歷	獨學 및 漢 學	國民學校 (中退 包含)	中·高 및 舊制中 (")	初 大 및 專 門 (")	大學中退	大 學 卒	大 學 院 (學位 未畢)	學位所持 者(碩士 以上)	未詳	計
3 乙	—	7.16	37.76	3.88	2.68	41.94	—	1.79	4.77	100%
3 甲	—	3.66	29.2	11.77	3.82	43.73	—	2.44	5.34	100%
2 乙	0.99	2.48	21.89	21.89	2.48	39.8	1.99	6.46	1.98	100%
2 甲	1.75	0.87	11.4	17.54	2.63	51.75	2.63	7.01	4.38	100%
1 級	—	—	—	—	—	—	—	—	—	—
未詳	100	—	—	—	—	—	—	—	—	100%

94%이다. 3級甲類의 경우에 있어서는 大學卒業 以上の 學歷을 지닌 公務員은 46.17%이고 高等學校卒業 以下の 學歷을 지닌 公務員은 32.86%이며 獨學 또는 漢學은 없다. 2級乙類를 보면 大學卒業 以上이 48.25%이고 高等學校卒業 以下가 25.36%이다. 2級甲類의 경우에 있어서는 大學卒業 以上이 61.39%인 반면 高等學校卒業 以下가 14.02%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職級이 높을수록 教育水準이 높다는 事實이다. 좀 더 具體的으로 말

한다면 職級이 높을수록 大學卒業 以上の 學歷을 지닌 公務員의 比率이 높고 高等學校卒業 以下の 學歷을 지닌 公務員의 比率이 低下하고 있다.

表 19-2 年齡別로 본 就任 當時의 學歷

年齡	就任 當時 學歷	獨 漢	學 字	國民學校 (中退 包含)	中 高 舊 制 中 學 (中退 包含)	初 專 (中退 包含)	大 門 大 學 中 退	大 學 卒 業	大 學 院 (學位 未畢)	學 所 持 者 (碩士 以上)	未 詳	計
20~25歲	—	—	—	—	—	—	—	100	—	—	—	100%
26~30歲	—	—	—	—	2.38	—	—	92.85	—	4.76	—	100
31~35	—	—	—	—	9.76	1.86	4.18	75.34	0.93	6.51	1.39	100
36~40	—	0.21	—	2.42	20.43	2.63	4.39	60.43	0.65	4.83	3.95	100
41~45	—	0.21	—	4.76	37.44	13.55	3.67	33.54	0.21	2.16	5.41	100
46~50	—	0.67	—	7.07	42.08	22.55	1.68	17.5	0.33	0.33	7.74	100
51~55	—	—	—	13.70	50.8	14.51	—	16.12	—	—	4.83	100
56~60	—	—	—	12.82	58.9	20.51	—	5.12	—	—	2.56	100
60歲以上	—	—	—	50	25	—	—	25	—	—	—	100
未 詳	—	—	—	—	100	—	—	—	—	—	—	100

다음에 年齡別로 學歷을 檢討하여 본다면 26—30 歲의 公務員中 大學卒業 및 그 以上の 學歷을 지닌 사람은 97.61%인데 對하여 高等學校卒業 및 그 以下の 學歷을 지닌 사람은 2.38%에 지나지 않는다. 31—35 歲의 경우를 본다면 大學卒業 및 그 以上이 82.78%이며 高等學校卒業 및 그 以下の 學歷을 지닌 사람은 9.76%이다. 36—40 歲의 公務員은 大學卒業 및 그 以上이 65.91%이고 高等學校卒業 및 그 以下가 23.06%이다. 41—45 歲의 경우를 본다면 大學卒業 및 그 以上이 35.91%이고 高等學校卒業 및 그 以下가 32.41%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現在의 年齡이 많으면 많을수록 高級公務員의 教育水準은 低下하는 傾向이 있다는 事實이다. 이는 日政下의 韓國人의 一般 教育水準이 至極히 낮았는데 反하여 質이야 어떻든 間에 解放後의 우리나라의 一般教育水準이 顯著하게 向上되었다는 것을 뜻한

表 20-1 美國 高級公務員의 就任時의 學歷(1948)

就 職 年 度	學 歷				合 計
	高 等 學 校	大 學 中 退	大 學 卒 業	學 位 所 持 者	
1909	22.6%	25.8%	22.6%	29.0%	100%
1910—1919	18.9%	27.6%	39.7%	13.8%	100%
1920—1929	8.9%	5.9%	32.3%	52.9%	100%
1930—1939	6.8%	11.7%	23.3%	57.6%	100%
全 體	12.3%	16.5%	28.4%	42.8%	100%

資料 : Bendix. *op. cit.*, p. 39.

表 20-2

美國 高級公務員의 學歷 (1959)

學 歷	高 級 公 務 員	男 性 人 口 (1957年 現在 30歲以上)
高 等 學 校 未 滿	0%*	46%
高 等 學 校 中 退	2	17
高 等 學 校 卒 業	5	21
大 學 中 退	15	7
大 學 卒 業	78	9

資料 : Warner, et al., op. cit., p. 190.

다고 하겠다. 解放當時 20歲 以上이 었을 41歲 以上の 公務員과 40歲 以下の 公務員間에 學歷의 顯著한 差異가 있다는 事實이 이를 立證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우리나라 高級公務員의 學歷을 美國의 高級公務員의 學歷과 比較한다면 우리나라의 高級公務員이 그 學歷에 있어서 美國의 高級公務員보다 낮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大學卒業 및 그 以上の 學歷을 지닌 高級公務員이 46.5%인데 대하여 美國의 경우에 있어서는 大學卒業者 및 그 以上の 學歷을 지닌 公務員이 71.2% 일 뿐만 아니라 碩士 또는 博士學位를 所持한者가 42.8%나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高等學校卒業 또는 그 以下の 學歷을 지닌 高級公務員이 35.54%인데 대하여 美國의 경우에 있어서는 12.3%에 지나지 않는다.

(2) 專攻學科

專攻學科도 教育水準의 경우와 같이 就任當時의 學歷을 가지고 論할 수 밖에 없다. 表21이 말하여 주는 바와 같이 政治學, 行政學, 法律學을 專攻한 公務員이 23.53%, 經濟學이 14.93%, 其他 社會科學이 1.64%, 人文科學이 3.53%, 自然科學이 31.7%로 되어 있다.

이를 年令別로 보면 26-30歲의 경우에 있어서는 政治學, 行政學, 法學, 經濟學이 66.6%이고, 自然科學이 33.3%이다. 46歲 以上の 公務員中에는 大學, 專門學校를 卒業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까닭에 專攻을 確實히 알 수 없는 公務員이 많다. 特記할만한 事實은 60歲

表 21

就任當時 專攻學科

就 任 當 時 專 攻 學 科	人 員 數	百 分 率
政 治·行 政·法 學	386名	23.53%
經 濟 學	254	14.93
教育心理및社會學및其他社會科學	27	1.64
人 文 科 學	58	3.53
自 然 科 學	520	31.8
없 음	3	0.18
未 詳	411	25.06
計	1,640	100

表 22

年齡別로 본 就任 當時의 專攻學科

年 齡	就任當時專攻學科							
	政治·行政·法學	產濟學	教育·心理·社會學 其他社會法學	人文科學	自然科學	없 음	未 詳	計
20~25歲	100	—	—	—	—	—	—	100%
26~30	50	16.6	—	—	33.3	—	—	100
31~35	41.39	13.02	1.39	6.51	36.9	—	6.97	100
36~40	29.67	16.48	1.75	4.61	31.64	0.43	15.38	100
41~45	15.36	16.01	1.94	3.46	33.33	0.21	29.65	100
46~50	15.15	15.48	1.38	1.01	30.97	—	36.02	100
51~55	16.12	10.48	2.41	2.41	26.61	—	41.93	100
56~60	10.24	5.12	—	2.56	41.02	—	41.02	100
60歲以上	—	—	—	—	25	—	75	100

以上の 公務員의 경우에 있어서는 專攻學科未詳 75%를 除外한 25%는 自然科學專攻이며, 56—60歲의 경우에 있어서도 專攻學科未詳 41.02%를 除外한 59%의 公務員中 41%가 自然科學專攻이라는 것이다. 換言하면 高齡의 公務員中에는 自然科學을 專攻한 技術者인 까닭에 高齡임에도 不拘하고 公務員으로 在職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3) 出身學校

就任時의 學歷을 가지고 出身大學을 살펴 본다면 서울大學校가 20.54%로서 首位를 차지

表 23

就任 當時 出身 大學

就 任 當 時 大 學	人 員 數	百 分 率
서울 大	337名	20.54%
高 大	56	3.41
延 大	54	3.29
其他 서울에 있는 大 學	189	11.52
地 方 大 學	146	8.9
海 外 留 學	192	11.70
未 詳	666	40.6
計	1,640	100

表 24

現職級別 就任 當時 出身 大學

現職級	就任當時의 大學							
	서울大	高 大	延 大	其他 서울에 있는 大 學	地方大學	海外留學	未 詳	計
3 乙	17.31	2.98	2.38	12.68	9.70	4.77	50.14	100%
3 甲	17.27	3.82	3.51	11.77	8.4	12.84	39.29	100
2 乙	27.86	3.48	5.47	5.97	7.96	22.88	26.36	100
2 甲	27.19	3.50	3.5	13.15	8.77	26.31	17.54	100
1 級	—	—	—	—	—	—	—	—
未 詳	100	—	—	—	—	—	—	100

表 25

年齡別로 본 就任 當時의 出身 大學

年 齡	就任當時의 大學							未 詳	計
	서울大	高 大	延 大	其他 서울에 있는 大學	地方大學	海外留學			
20~25歲	100	—	—	—	—	—	—	100%	
26~30	59.52	11.9	2.38	16.66	4.76	2.38	2.38	100	
31~35	40	3.25	2.32	23.25	15.81	3.25	12.09	100	
36~40	26.37	4.61	3.95	16.92	14.72	6.37	27.03	100	
41~45	17.96	1.94	3.03	9.95	7.14	11.25	48.7	100	
46~50	5.72	4.04	4.04	2.02	2.35	23.9	57.91	100	
51~55	2.41	0.8	2.41	2.41	1.61	20.96	69.35	100	
56~60	5.12	2.56	2.56	—	2.56	12.82	74.35	100	
60歲以上	—	—	—	—	—	25	75	100	
未 詳	—	—	—	—	—	—	100	100	

하고 있으며, 高麗大學校가 3.41%, 延世大學校가 3.29%로 되어 있다. 그밖에 서울에 있는 其他 大學이 11.52%, 地方大學이 8.9%를 차지하고 있다. 海外留學이 11.70%를 차지하나 大學名은 알 길이 없다.

表 26-1

美國의 高級 公務員의 出身 大學(1948)

學 校	別	人 員 數	%
하바드 大學	Harvard	36	11.2
컬럼비아 大學	Columbia	16	5.0
조지와싱턴 大學	George Washington	14	4.3
미쉬간 大學	University of Michigan	13	4.0
위스콘신 大學	University of Wisconsin	9	2.8
내쇼날 大學	National	9	2.8
코넬 大學	Cornell	7	2.2
와싱턴 大學	University of Washington	7	2.2
와싱턴法科 大學	Washington College of Law	6	1.9
시카고 大學	University of Chicago	6	1.9
미조리 大學	University of Missouri	6	1.9
조지타운 大學	Georgetown	22	6.9
존홉킨스 大學	Johns Hopkins	6	1.9
푸린스톤 大學	Princeton	6	1.9
아이오와州立 大學	Iowa State	6	1.9
버지니아 大學	University of Virginia	5	1.4
텍사스 大學	University of Texas	5	1.4
일리노이 大學	University of Illinois	5	1.4
캘리포니아 大學	University of California	5	1.4
스탠포드 大學	Stanford	5	1.4
컬럼부스 大學	Columbus	5	1.4
其 他	All others	17	36.3

資料 : Bendix, *op. cit.*, p. 40.

이를 職級別로 본다면 서울大學校出身者는 3級 乙類나 3級 甲類의 경우에 있어서 各各 17.3%이나 2級 乙類의 경우에 있어서는 27.9%, 2級 甲類의 경우에는 27.2%로 되어 있다. 高大出身者는 3級 乙類의 2.98%, 3級 甲類의 3.8%. 2級 乙類의 3.5%, 2級 甲類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延世大出身者는 3級 乙類의 2.4%, 3級 甲類의 3.5%, 2級 乙類의 5.5%, 2級 甲類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級公務員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大學校出身者가 平均(20.5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3級公務員의 경우에 있어서는 平均 以下라는 事實이다. 또한 高大나, 延大出身者는 3級乙類

表 26-2

美國 高級 公務員의 出身 大學 (1959)

順 位	學 校 名	百 分 率
1	조지와싱턴大學 George Washington	3%
2	뉴욕市立大學 City College of N.Y.	3
3	캘리포니아大學 California (Berk.)	2
4	오하이오州立大學 Ohio State	2
5	미네소타大學 Minnesota	2
6	일리노이大學 Illinois	2
7	와싱턴大學 Washington (Seattle)	2
8	위스콘신大學 Wisconsin	2
9	맷사추셀工科大學 M.I.T.	2
10	미쉬간大學 Michigan	1
11	뉴욕大學 New York	1
12	코넬大學 Cornell	1
13	벤자민후란쿠린大學 Benjamin Franklin	1
14	풀두우大學 Purdue	1
15	미조리大學 Missouri	1
16	네브라스카大學 Nebraska	1
17	펜실바니아州立大學 Pennsylvania State	1
18	코로라도大學 Colorado	1
19	펜실바니아大學 Pennsylvania	1
20	아이오아州立大學 Iowa State	1
21	하바드大學 Harvard	1
22	캔사스州立大學 Kansas State	1
23	매리랜드大學 Maryland	1
24	테네시大學 Tennessee	1
25	신시나티大學 Cincinnati	1
26	시라큐스大學 Syracuse	1
27	스탠포드大學 Stanford	1
28	아라바마工藝大學 Alabama Polytech.	1
29	조지타운大學 Geoegetown	1
30	오레곤州立大學 Oregon State	1

資料 : Warner, et al., op. cit., p. 191.

의 경우에 있어서 平均 以下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에 年齡別로 出身大學을 살펴 본다면 高大나 延大의 경우에 있어서는 一定한 傾向을 찾기 힘들나 서울大學校出身者의 경우에는 一定한 傾向을 찾아 볼 수 있다. 卽 36—40 歲의 公務員中에는 서울大學校出身者가 26.37%인데 31—35 歲의 경우에는 40%로 늘어나고 있으며, 26—30 歲의 경우에 있어서는 59.52%에 達하고 있다. 20—25 歲의 경우는 100%로 되어 있으나 人員數가 一名이므로 問題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現象을 美國이나 英國의 경우와 比較하여 보면 興味가 있다. 美國의 경우에 있어

表 27 公開競爭試驗에 依하여 採用된 英國 高級 公務員의 出身 大學
(1909年—39年과 1949年—52年)

出身 學校	1909—1939		1949—1952	
	No.	%	No.	%
옥 스 포 드	378	43.2	101	45.3
옥스포드와 다른大學	21	2.4	4	1.8
캠 브 릿 지	296	33.8	60	26.9
캠브릿지와 다른大學	26	3.0	1	0.4
론 돈	52	5.9	27	12.1
에 던 바 라	5	1.5	7	3.1
其他의 스코트랜드大學	23	2.6	13	5.8
其他(스코트랜드除外)	34	3.9	10	4.5
大學 卒業 未 한 者	15	1.7	—	—
合 計	876	100.0	223	100.0

資料 : Kelsall, *op. cit.*, p. 139.

表 28 英國의 高級 公務員의 出身 大學
(1950年 當時 各種 經路를 거쳐 行政階級에 들어온 자로서)

出身校	公開競爭 試驗		執行階級으로부터 昇 進		모 든 經 路	
	No.	%	No.	%	No.	%
옥 스 포 드	188	41.2	10	2.7	249	23.8
옥스포드와 他 大學	16	2.5	0	0	28	2.7
캠 브 릿 지	159	34.9	5	1.3	195	18.7
캠브릿지와 他 大學	12	2.6	1	0.3	22	2.1
론 돈	22	4.8	10	2.7	58	5.6
에 던 바 라	18	3.9	4	1.1	30	2.9
其他 스코트랜드大學	16	3.5	8	2.1	29	2.8
其他(스코트랜드除外)	17	3.7	6	1.6	49	4.7
大學 未 卒 業 者	8	1.7	331	88.3	385	36.8
合 計	456	100.0	375	100.0	1,045	100.0

Kelsall, *op. cit.*, p. 137.

서는 1948 年의 統計에 依하면 하바드大學이 11.2%로서 首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컬럼비아(Columbia)大學 (5.0%), 조지와싱턴(George Washington)大學 (4.3%), 미쉬간(Michigan)大學 (4.0%)의 順으로 되어 있다. 1959 年의 統計에 依하면 조지 와싱턴大學(3%), 뉴욕市立大學(3%), 켈폴니아大學(2%)의 順으로 되어 있다. 英國의 경우에 있어서는 1909 年부터 1939 年에 이르는 期間동안에 있어서는 옥스포드出身(옥스포드를 卒業하고 다른 大學을 卒業한者를 包含)이 45.6%를 차지했으며 옥스포드와 켈브릿지를 合한 數가 82.4%를 차지했으나 1949 年부터 1952 年에 이르는 期間에 있어서는 옥스포드와 켈브릿지를 合한 比率이若干 低下하여 82.4%에서 74.4%가 되었다. 그러나 옥스포드出身者의 比率은 도리어 增加하여 47.1%가 되었다. 이는 公開競爭試驗에 依하여 行政階級에 들어온 사람만 가지고 考察한 것인데 1950 年 現在 行政階級公務員의 出身學校를 그들이 行政階級으로 들어온 經路에 關係없이 살펴보면 옥스포드出身이 26.5%, 켈브릿지出身이 20.8%이며 大學을 卒業하지 못한 高級公務員이 36.8%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考察할 때 美國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大學을 莫論하고 한 大學 卒業生이 全體에 있어서 차지 하는 比率은 極히 얕은데 對하여 英國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事情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英國의 옥스포드出身者는 英國高級公務員의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大學校出身者는 韓國 高級公務員의 20.5%를 占하고 있는 것이다. 多幸히도 2 級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大學校 出身者가 27%를 上廻하고 있으나 3 級公務員의 경우에 있어서는 17%內外에 지나지 않는다.

(4) 外國訓練

우리나라의 高級公務員中 外國訓練의 經驗이 있는 사람은 14.2%이다. 이를 職級別로 본다면 3 級乙類의 경우에 있어서는 5.07%, 3 級甲類의 경우는 14.67%, 2 級乙類는 29.35%, 2 級甲類는 37.71%이다. 職級이 높을 수록 外國訓練의 經驗을 지닌 公務員의 比率이 增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年齡別로 보면 36—40 歲의 公務員의 경우에 있어서는 外國訓練의 經驗이 있는 사

表 20 外國訓練

外國訓練				人員數	百分率
있	다	있	다	233	14.2
간	적	없	다	1,402	86.58
未			詳	5	0.3
計				1,640	100%

람이 17.8%를 차지하므로써 가장 比率이 높고 다음이 31—35 歲의 公務員(17.2%)이다. 高齡의 公務員은 年齡關係로 外國訓練의 機會를 가지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年少한 公務員은 職級이 낮은 關係로 外國訓練의 機會를 上級者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다.

表 30 現職級別外國訓練

外國訓練		갔 다 왔 다	간 직 없 다	未 詳	計
現職級					
3 乙		5.07	94.62	—	100
3 甲		14.67	84.86	—	100
2 乙		29.35	70.14	0.49	100
2 甲		37.71	61.4	0.87	100
1 級		—	—	—	—
未 詳		100	—	—	100

表 31 年齡別로 본 外國訓練

外國訓練		갔 다 왔 다	간 직 없 다	未 詳	計
年 令					
20~25歲		—	100	—	100%
26~30		2.39	97.61	—	100%
31~35		17.2	82.32	0.46	100%
36~40		17.8	81.75	0.43	100%
41~45		13.41	86.36	0.21	100%
46~50		13.46	86.53	—	100%
51~55		7.25	91.93	0.86	100%
56~60		5.13	94.87	—	100%
60歲以上		—	100	—	100%
未 詳		100	—	—	100%

表 32 就任 當時 學歷別로 본 外國訓練

外國訓練		갔 다 왔 다	간 직 없 다	未 詳	計
就任當時學歷					
獨 學·漢 學		—	100	—	100%
國 民 學 校(中退包含)		—	100	—	100%
中·高 및 舊制中(中退包含)		7.38	92.41	0.19	100%
初·大 및 專門學校(")		23.35	75.44	1.19	100%
大 學 中 退		15.68	84.32	—	100%
大 學 卒		18.38	81.32	0.28	100%
大 學 院(學位未畢)		28.57	71.42	—	100%
學 位 所 持 者(碩士以上)		14.28	85.71	—	100%
未 詳		13.15	86.84	—	100%

表 33

外國訓練回數

外國訓練回數	人員數	百分率
1 回	194	11.82
2 "	34	2.07
3 "	7	0.42
2 以上	—	—
未詳	1,405	85.67
計	1,640	100%

表 34

外國訓練總期間

外國訓練總期間	人員數	百分率
1年未滿	153	9.32
2年 "	73	4.45
3年 "	7	0.42
4年 "	1	0.6
5年 "	—	—
5年以上	—	—
未詳	1,406	85.73
計	1,640	100%

表 35

外國訓練國名

外國訓練國名	人員數	百分率
主 美 國	140	8.5
" 日 本	32	1.9
" 英 國	7	0.42
" 獨 逸	1	0.6
" 佛 國	1	0.6
其 他 亞 阿	31	1.89
" 歐 美	17	1.03
其 他	6	0.36
未詳	1,405	85.67
計	1,640	100%

學歷別로 外國訓練을 본다면 高等學校卒業 또는 그 以下の學歷을 지닌 公務員中에는 外國訓練의 經驗을 지닌 사람이 드물며 적어도 初級大學 또는 舊制專門學校程度의 學歷을 지녀야 外國訓練의 機會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外國訓練回數를 살펴 본다면 豫想한 바와 같이 1회가 가장 많고 2回, 3回의 順序로 되어 있으며 그 以上은 없다.

外國訓練期間도 1年未滿이 가장 많고 2年, 3年, 4年의 順序로 되어 있으며 4年 以上은

全無하다.

高級公務員이 外國訓練을 위하여 다녀온 나라를 살펴 본다면 主로 美國에 다녀온 사람이 가장 많다. 外國訓練을 위한 經費를 ICA AID 등에서 負擔하는 경우가 많은 까닭이라고 하겠다.

六. 宗 教

우리나라 高級公務員의 信仰生活을 본다면 基督教信者가 11.89%로서 가장 많고, 다음이 佛敎信者로서 9.32%, 儒敎(5.54%), 天主教(3.41%)의 順序로 되어 있다.

이를 職級別로 본다면 職級이 높을수록 宗教를 지닌 公務員의 比率이 높아가고 있다. 다른 宗教의 경우에 있어서는 一定한 傾向을 찾아 볼 수 없으나 基督教의 경우에 있어서는 職級이 높을수록 基督教信者의 比率이 上昇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36 宗 教

宗 教	人 員 數	百 分 率
儒 教	91	5.54
佛 教	153	9.32
基 督 教	195	11.89
天 主 教	56	3.41
其 他	3	0.18
없 음	1,142	69.63
計	1,640	100%

表 37 現 職 級 別 로 본 宗 教

宗 教	儒 教	佛 教	基 督 教	天 主 教	其 他	없 음	計
現 職 級							
3 乙	5.37	9.1	8.5	1.94	0.29	76.11	100
3 甲	5.65	9.93	11.77	4.58	0.15	67.88	100
2 乙	4.97	7.96	18.4	3.98	—	64.67	100
2 甲	6.14	9.64	21.05	4.38	—	58.77	100
1 級	—	—	—	—	—	—	—
未 詳	100	—	—	—	—	—	100

七. 前 職

우리나라 高級公務員의 前職을 본다면 無職이 32.13%로서 가장 많고, 軍人(14.08%), 敎師(11.7%), 會社員(8.71%)의 順序로 되어 있다.

이를 職級別로 살펴 볼 때 몇가지 傾向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로 職級이 높을 수록 前職이 軍人이었던 公務員의 比率은 높아가고 있으며, 둘째로 職級이 높을수록 公務員으로 就

表 38 前 職

前 職	人 員 數	百 分 率
學 生	11名	0.67%
軍 人	231	14.08
教 師	192	11.7
會 社 員	143	8.71
農 業	1	0.6
工 業	—	—
商 業	—	—
技 工 · 勞 動	52	3.17
其 他	482	29.39
無 職	527	32.13
未 詳	1	0.6
計	1,640	100

表 39 現 職 級 別 로 본 前 職

前職	學 生	軍 人	教 師	會 社 員	農 業	工 業	商 業	技 工	其 他	無 職	未 詳	計
3 乙	0.14	11.49	11.94	9.85	—	—	—	1.4	21.49	43.43	0.14	100%
3 甲	0.76	14.98	11.46	8.56	0.15	—	—	2.9	34.55	26.6	—	100%
2 乙	1.49	16.41	11.44	6.46	—	—	—	10.44	31.34	22.38	—	100%
2 甲	1.75	20.17	12.28	6.14	—	—	—	1.75	42.98	14.91	—	100%
1 級	—	—	—	—	—	—	—	—	—	—	—	—
未 詳	—	—	—	100	—	—	—	—	—	—	—	—

表 40 年 齡 別 로 본 前 職

前職	學 生	軍 人	教 師	會 社 員	農 業	工 業	商 業	技 工	其 他	無 職	未 詳	計
20~25歲	—	—	—	—	—	—	—	—	—	100	—	100%
26~30	2.38	4.76	4.76	9.52	—	—	—	—	38.09	40.47	—	100%
31~35	1.39	20.	10.23	10.23	—	—	—	0.93	26.97	30.23	—	100%
36~40	0.43	25.05	16.04	6.15	—	—	—	1.31	26.37	24.61	—	100%
41~45	0.64	10.6	14.06	9.30	—	—	—	2.81	30.08	32.46	—	100%
46~50	0.67	5.05	7.4	11.44	—	—	—	3.36	32.65	39.05	0.33	100%
51~55	—	5.65	6.45	7.25	—	—	—	8.87	27.41	43.35	—	100%
56~60	—	2.56	—	5.12	2.56	—	—	25.64	41.02	23.07	—	100%
60歲以上	—	—	—	25	—	—	—	—	50	25	—	100%
未 詳	—	—	—	—	—	—	—	—	—	100	—	100%

任하기前에 無職으로 있었던 사람의 比率과 前職이 會社員이었던 사람의 比率은 낮아가고 있다.

年令別로 公務員의 前職을 살펴 본다면 26—30歲와 31—35歲의 경우에 있어서는 無職이 首位를 차지하나, 36—40歲의 公務員中에는 前職이 軍人이었던 사람의 比率이 25%로서 「其他」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41—45歲, 46—50歲, 51—55歲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無職이 首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56—60歲의 경우와 60歲 以上の 경우에 있어서는 「其他」가 首位를 차지하고 있다.

좀 角度를 달리하여 就任當時의 年令을 基準으로하여 高級公務員의 前職을 살펴 본다면 20歲 以下와 20—25歲의 경우에 있어서는 無職이 首位를 차지 하고 있으며 26—30歲에 公務員으로 就任한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其他」가 首位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31—35歲, 36—40歲, 41—45歲, 50歲 以上の 경우에 있어서는 前職이 軍人이었던 公務員의 比率이 首位를 차지하고 있다. 特히 36—40歲의 경우에 있어서는 前職이 軍人이었던 公務員

表 41 就任 當時의 年令別로 본 前職

前職 年令	學 生	軍 人	教 師	會社員	農 業	工 業	商 業	技 勞	工 勤	其 他	無 職	未 詳	計
20歲以下	0.35	0.7	2.46	2.81	—	—	—	8.45	34.15	51.05	—	—	100%
20~25	1.27	2.35	7.8	7.98	—	—	—	4.17	32.48	43.73	0.18	—	100%
26~30	0.52	11.54	17.58	11.02	—	—	—	1.04	30.44	27.82	—	—	100%
31~35	0.38	36.01	19.54	11.49	—	—	—	0.38	21.83	10.34	—	—	100%
36~40	—	56.12	14.28	9.18	—	—	—	—	18.36	2.04	—	—	100%
41~45	—	42.10	18.42	15.78	2.63	—	—	—	15.78	5.26	—	—	100%
46~50	—	36.36	18.18	—	—	—	—	—	45.45	—	—	—	100%
50歲以上	—	66.66	—	—	—	—	—	—	33.3	—	—	—	100%
未 詳	—	7.69	7.69	30.76	—	—	—	—	23.07	30.76	—	—	100%

이 56.12%를 차지하고 있으며 50歲 以上の 경우에 있어서는 66.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46—50歲에 公務員으로 就任한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其他」가 首位를 차지하고 있다.

八. 就 職 動 機

우리나라 高級公務員의 就職動機를 質疑書를 通하여 調査한 結果 生計維持가 26.1%로서 首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名譽나 社會的 認定感때문에 公務員을 擇했다고는 사람이 19.1%, 「興味로」 公務員이라는 職業을 擇했다고는 사람이 12.9%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 注意할 點은 많은 公務員이 어느 한 動機로 因해서 公務員이 된 것이 아니라 複合的인 動機로 因해서 公務員이라는 職業을 擇했을 것이라는 事實이다.

表 42 就 職 動 機

區 分	人 員 數	百 分 率
生 計 維 持	172명	26.1%
周 圍 사 람 들 의 勸 告	65	9.8
名 譽 나 社 會 的 認 定 感 때 문 에	126	19.1
學 校 關 係 로 부 두 이	29	4.4
周 圍 사 람 들 이 公 務 員 이 기 때 문	4	0.6
興 味 로	85	12.9
其 他	30	4.5
無 應 答	147	22.3
計	658	100